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 성과...강북문화재단,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서 3년 연속 우수사례상·전국 문화재단 선정 우수상 '2관왕'

안용호 기자 | 승인 2026.07.23 10:46

강북문화재단은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선보이며 강북구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교육 모델 널리 알려



강북문화재단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장상 수상 사진. 사진=강북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관련 사진. 사진=강북문화재단

서울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이 전국 단위 행사인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장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전국 문화재단이 선정한 우수 참여재단 우수상(2위)까지 차지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후원한 이번 페스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엑스포타워 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사 기간 동안 '지역문화 우수사례관'을 운영한 강북문화재단은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선보이며 강북구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교육 모델을 널리 알렸다.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는 강북문화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자체 사업을 본격화하고 2025년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21개 기관과 연계하는 등 사업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오누이 이야기'로 2026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억배 작가의 강연을 비롯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그 결과 2023년 시범사업 당시 156명이었던 참여자가 4,755명으로 늘어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강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전국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북구의 우수한 문화사업을 알리고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강북문화재단은 유연하고 친근한 태도로 주민과 예술가, 예술가와 기획자, 일상과 예술을 이어 간다. 전략 목표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 향유 확대, 강북다움 실현, 혁신경영 시스템 구축이다. '역사로 꿈꾸고 문화로 빛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



안용호 기자